

겠습니다.

아울러 영세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영어자금 이차보전, 면세유, 재해보상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연안정비 및 어항 주변 시설물을 정비하여 어촌정주 여건을 더욱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성군은 농어업과 함께 관광과 문화를 접목한 관광업을 주요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새해 들어 관광업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고성군은 관광활성화를 위해 최북단 마을 명파리 일대에 2020년까지 743억원을 투입하여 역원마을, 평화·생명지대(PLZ) 국도횡단웰컴센터, 북한민속마을, 숙박시설, 전통 먹거리촌을 조성하여 통일전망대와 DMZ박물관을 연계한 안보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금강산 구선봉과 아름다운 동해의 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 거진 등대 해맞이 공원조성사업에 28억원을 투자하여 조형물 설치, 쉼터조성, 산책로 조성 등을 통해 관광객 및 지역주민에 전국 최고의 산소 체험길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관광지 대규모 민자 시설 유치로 타 지역과 차별화된 관광지 조성으로 관광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화진포 일원에 2016년까지 6,000억원의 민자를 유치하여 국제휴양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송지호 해변 주변에 해양심층수 워터파크 및 심층수 과학관 등 조성을 위해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추진한 고성태 브랜드화 사업과 관련 러시아 명태 직거래사업이 사실상 실패해, 주민들의 고성태사업 중단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명태 직거래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고성태브랜드화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냉동명태를 직수입해 처음 시작한 해풍명태 건조사업이 주민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호응도가 높아 올해에는 사업량을 확대하여 지난해 각 마을에서 조직된 영농조합법인들이 모여 만든 (사)강원고성명태생산자협회를 비롯해 군여성단체협의회, 군지활센터,

다. 주민들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자치단체장의 의지만 있다면 이들 공무원을 고성군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면 매일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 간단한 체조와 집앞 청소를 하고 시내를 한바퀴 걷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걷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나만의 비법이자 스트레스를

농·어업 특성화·차별화·명품화 전략...산림치유 소득과 연계 명파리 통일전망대와 DMZ박물관 연계한 안보관광지로 개발 해풍명태 건조사업 5개 단체 106명 참여 '고성태' 552톤 생산 관외 거주 공무원 거주지 이전토록 지속 촉구...주택 보급 확충

화진포정보화마을, 그린회 등 5개 단체 106명이 참여해 해풍명태건조시설 9개소 191틀을 활용하여 3월까지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고성태' 552톤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거진 송포리에 15톤급 급냉실과 3,500톤급 냉장실을 설치하는 냉동·냉장보관창고 건립공사를 착공, 올해 8월 완공되면 냉동명태를 안정적으로 저장할 수 있어 러시아 냉동명태 수입사업도 본격도에 올라 명태 수입과 함께 가공산업 추진도 급물살을 타 명태고장으로서의 자긍심을 한층 높이고 농한기 지역일자리 창출을 통해 주민소득증대에도 큰 효과 노릇을 할것입니다.

-지난해 군의회에서 고성군 공무원 가운데 주소는 고성에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는 속초에서 하는 공무원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있었습니

역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자치단체마다 다양한 인구 늘리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관외거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으나 교육과 주택문제 등으로 완벽하게 해소되지 못하고 있어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함은 물론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어 관외 거주 공무원의 인식변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는 물론 평등권·행복추구권 등 여러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경기가 침체되고 지역이 공동화 되어 주민의 어려움이 가중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지역주민과 어려움을 함께 나눈다는 차원에서 다소의 불편이 있더라도 관내로 거주지를 이전토록 지속적으로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파트를 포함해 주택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 되도록 주택 보급을 확충해 나가고 교육 또한 지속적인 지원과 투자를 통해 교육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워낙 건강하시기로 유명하신데요, 요즘도 약주를 많이 하시는지요,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있다면

해소 할 수 있는 길입니다.

-끝으로 고성군민과 고성신문 독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012년 임진년 용의 해에는 민선5기 희망과 도약의 3년차로 어느때보다 열심히 뛰고, 많은 사업들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지속가능한 농·어업 소득창출 기반조성, 희망과 사랑 그리고 행복이 넘치는 복지군정 구현, 매력있는 관광도시조성,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등 우리의 희망과 계획을 다시금 정비하고 튼튼히해서 더 높고 단단한 성공탑을 쌓아 올릴 것입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고성군이 더 큰 발전을 이루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늘 한마음 한 뜻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며, 임진년 새해, 군민 여러분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소원 성취되시길 바라며, 삶의 일터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정리 : 최명호 기자

